

# 8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주택지표에 힘겹게 상승.. 다우 0.04%↑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7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음. 가격부담으로 장중 약세권을 넘나들었지만 주택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장막판 상승세로 돌아섰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4.23포인트(0.04%) 상승한 9,543.5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0포인트(0.01%) 오른 2,024.43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12포인트(0.01%) 상승한 1,028.12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해 장중 약세권을 계속해서 넘나들었음. 5개월 연속 쉼없이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7월 내구재 주문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흡했던 점이 일부 차익매물을 불러들였음. 그러나 7월 신규주택판매가 기대 이상의 호조세를 나타내며 힘입어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돼 결국 다우 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특히 월가가 주목하는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의 개발자인 로버트 쉐러 예일대 교수가 주택시장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호재가 되었음.
주택건설주 강세.. 쉐러 교수 `턴 어라운드` 언 급	주택건설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음. 이날 발표된 7월 신규주택판매를 비롯해 최근 주택경기 관련 지표들이 뚜렷한 개선세를 내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 특히 로버트 쉐러 예일대학 교수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이 턴 어라운드하고 있는 듯 싶다"고 밝힌 점도 투자심리에 큰 도움을 주었음. 주택건설업체인 호브내니언이 9% 이상 올랐고, 다우 지수 구성종목인 건축자재체인점 홈디포도 강세로 마감했음. 또 고급주택 건설업체인 톨 브라더스가 3% 이상 올랐고, 역시 건설업체인 DR 호튼과 비저홈즈도 5% 안팎씩 상승했음.
美 7월 신규주택판매 `서프라이즈`	미 상무부는 7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대비 9.6% 급증한 연율 43만 3,000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같은 판매량은 2005년 2월 43만 3,000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상회했음. 블룸버그통신이 71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센서스로는 연율 39만채가 예상되었음. 실업률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집값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신규주택 판매증가로 이어졌음. 예상보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영향으로 신규 주택 재고는 전월비 3.2% 감소한 연율 27만 1,000채로 줄었음.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35%나 급감한 수치이고 특히 16년래 최저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7월 내구재 주문은 운송장비 제외하면 `기대치 미흡`	개장전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보다 4.9% 증가했으나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를 제외할 경우 7월 내구재 주문은 기대치에 미흡했다는 평가. 이같은 증가폭은 2007년 7월 이후 최근 2년래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도 웃돌았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3% 증가가 예상되었음. 그러나 7월 내구재 주문은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0.8% 증가하는데 그침. 이같은 증가세는 3개월째 이어졌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0.9%는 밀돌았음.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 재고증가 영향	국제유가가 미국의 재고 증가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71달러선으로 후퇴했음.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62센트(0.9%) 떨어진 71.43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가격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간 원유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지난주(21일 마감기준) 미국의 원유재고가 20만배럴 증가한 가운데 휘발유재고는 170만배럴 줄었고 정제유재고는 8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음.
中 경제성장률 내년 1분기 10% 전망"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의 바수승 부국장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내년 1분기 통화정책 완화에 힘입어 10%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올해 GDP 전망과 관련해서도 "증가율은 올해 정부의 목표치인 8%에 도달할 것"이라고 바국장은 예상.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서 단기간 내 특별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日 수출 감소세..글로벌 경기부양 한계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7월 수출이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5% 줄면서, 감소율은 전문가 예상치(38.6%)를 소폭 상회. 미국과 중국 수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음. 대미 수출은 엔화 강세 타격을 받은데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줄었음. 대중국 수출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출과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축됐음. HSBC 증권의 시라이시 셰이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달 동안 기업들의 재고 비축 노력과, 전 세계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에 힘입어 일본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7월 지표를 보면 수출 회복 모멘텀은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제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이전 회복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86을 기록하며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상승기조를 이어갔음. 또 지난해 5월(8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경기 체감도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됐음을 나타냈음. 이는 예상보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강도가 강하게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 매출과 생산, 수출, 내수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감경기 회복의 기운이 확인됐음.
소비자체감경기 7년來 최고치..`자산가격↑ 영향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109)보다 5포인트 상승한 114를 기록하며, 지난 200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 정귀연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증가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다만 경기회복 속도를 경기체감도가 못따라간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